

의례, 공연, 그리고 연대의 문제

-50주년 기념 4·3 도민해원상생굿을 중심으로-

현 해 경*

요 약

97년 정권교체 후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4·3진상규명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98년 제주의 4월은 완전히 불법적으로 간주되었던 4·3 기념제가 5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들로 채워졌다. 제주민예총을 주축으로 '제50주년 제주 4·3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학술사업과 문화예술사업, 해원사업, 영상사업, 도민참여이벤트사업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50주년 기념행사들이 동시에 열렸으며, 명예회복 축구대회들도 이 기간에 일제히 열렸다.

이 기간 동안 치러진 행사는 해원적 성격의 행사가 많았는데, 그 중 '50주년 기념 4·3도민해원상생굿'¹⁾은 기념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 대표성을 띠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치러진 굿 의례는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겨 주었다. 그것은 과거의 구체적 사실의 해원과 현대사회의 사회적 쟁점 사이의 합의의 문제를 비롯해 4·3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간극, 의례와 공연사이의 간극의 한계를 어떻게 떼어 연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심하도록 했다. 이 글은 그런 고민의 수준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작성한 글이다.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1) 이 글은 1998년 4월 2일부터 3일까지 치러진 '50주년 기념 4·3도민 해원상생굿'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다. '50주년 기념 4·3 도민해원상생굿'이란 어순은 당시 행사에 사용되었던 어순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I. 들어가며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역에서는 각종 의례들이 폭증하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미인대회가 40여 개에 이른다는 소리는 지방 정치권력이 각종 의례들을 권력행사에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예라 하겠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문화산업론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정치권력의 상징성 확보에 필요한 도구로써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²⁾

본래 의례라는 것은 집단 정착생활의 산물로 인식되어 집단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의 생산체계 및 집단의 연대 또는 집단의 정치권력에게 주기적인 힘을 부여해주기 위해 진행되는 종교적 의식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래서 의례라는 것은 신성시되었으며, 절대적인 신성으로부터 힘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나 참여자는 동일한 힘의 테두리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회의례들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상징의 힘을 일깨워준다. 그러한 점에서 지자체 실시 이후의 의례들의 증폭은 중앙권력으로부터의 지방권력으로 힘을 이양시키는데 좋은 도구가 되었으며, 정치권력의 유용한 상징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정치권력 및 국가정치권력의 지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그것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의례들이 밑으로부터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민중들에 의해 저항을 기념하는 의례들이었다. 4·19혁명 기념의례, 광주 5·18민주화 기념의례를 비롯한 각종 추모제 등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전통적 축제들이 식민지 체제와 분단 체제를 거치면서 정치권력에 의해 단절, 왜곡, 변형되는 동안 민중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기초에서 새로운 의례들을 만들어

2) 정근식(1996)은 우리나라의 도시축제는 위로부터의 관주도적인 것이 많았고 따라서 사실상 이것이 지역인을 만들어내는 효과는 미미했지만, 지방자치가 전진되면서 그것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도시축제가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경우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내고 있었으며, 그것은 전반적으로 암울했던 권위주의 체제에서 축제가 상실된 시대에 저항을 기념하는 의례들로, 또한 연대를 위한 매개로 생산되고 있었다. 이 의례들은 과거 정치권력에 의해 탄압 받았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그것을 통해 과거의 사실들을 재 기억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재해석하고 그들의 연대를 위한 도구로써 활용했다.

따라서 이러한 축제들은 제5공화국시점까지 완전히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철저히 탄압 받아왔다. 광주에서 해마다 치러지고 있는 5월 제 행사도 1987년 카톨릭 회관에서 열린 5월 사진전으로 대중적인 저항을 유도하면서 축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1988년부터는 반합법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정근식 1996). 그러다 1994년에는 오히려 국가권력에 의해 망월동의 성역화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 이전에 그런 요구를 희석화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측면이 강했다(정근식 1996). 이것은 마치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는 축제를 공화주의 시대의 시작과 일치시킴으로서 현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국가가 곧 유토피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알리는 효과와 흡사한 것이었다. 98년 제주의 4월도 그러했다. 완전히 불법적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4·3기념 행사는 97년 정권교체 후 4·3진상규명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국가정치권력과 지방정치권력의 묵인 및 동조 하에 50년 전 상실된 과거를 들춰내어 5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로 한 달이 채워졌다. 그 즈음 새롭게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제주민예총을 주축으로 '제50주년 제주 4·3 학살·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학술사업과 문화예술사업, 해원사업, 영상사업, 도민참여이벤트사업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서울의 탑골공원에서도 50주년 기념행사들이 제주와 동기간에 동시에 이뤄졌으며, 명예회복 추구대회들도 이 기간에 일제히 열렸다.³⁾

3) 98년 50주년 행사를 일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14일 브루스 커밍스 교수 초청강연회 일본 도쿄

4월 1일 도민해원상생굿 제주 한라체육관

4월 2일 4·3 50주년 제주음협 진혼 음악제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4월 2일 4·3 기념 미사 제주 신제주 성당

그러나 이 기간동안 행사의 성격은 해원적 성격이 강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 수면 위로 부상하여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고 그것을 기억해내야 하는 4월제의 초행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다. 따라서 50주년 기념 행사들 중 당연 해원상생굿과 해원상생탑 쌓기는 죽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해원행사가 되었으며, 본격적인 해원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전의 개인적인 해원의례들을 한 장소에 결집시켜야만 했다. 그 결과 해원행사들은 전통적인 해원의례들의 형태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고, 제주민예총은 굿이란 해원의례를 통해 그 동안 감추어졌던 응어리진 유족들의 한 풀이를 할 작정으로 12시간동안 치러지는 대장정의 도민해원굿을 기획하게 되었다.

-
- 4월 2일-8일 4·3주제전- '상극의 빗장을 열고 상생의 아름다움으로' 제주 문예회관 전시실
- 4월 3일 4·3위령제 제주 종합경기장내
- 4월 3일 작가와의 대화 4·3과 나의 문학 제주 가톨릭 회관 2층
- 4월 3일 4·3 50주년 기념 강연 및 기도회 제주 모습포 교회
- 4월 3일-12일 강요배 역사 그림전 '동백꽃 지다.' 서울 학교재
- 4월 3일-15일 4·3해원 방사탑 쌓기 제주 신산공원
- 4월 4일 4·3 50주년 기념식 및 명예회복 촉구대회 서울 탑골공원
- 4월 4일 4·3문학세미나 제주 가톨릭회관 2층
- 4월 4일 4·3진혼굿 서울 연강홀
- 4월 4일 4·3 50주년 기념 연극 및 추모콘서트 일본 동경
- 4월 4일 다큐멘터리 '본풀이' 상영 제주 가톨릭회관 2층
- 4월 4일 노래빛 사월 노래공연 'Since 1948화석'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 4월 4일-10일 4·3 역사 사진전 '긴 어둠 속을 지나' 제주 세종 갤러리
- 4월 5일 4·3진혼굿 서울 연강홀
- 4월 5일 다큐멘터리 '본풀이' 상영 제주 가톨릭회관 2층
- 4월 9일 학술심포지움 '4·3과 잃어버린 마을' 제주 삼성화재 11층
- 4월 11일-17일 50년의 4·3, 3년의 4·3미술전
- 4월 25일 풍물굿패 신나라 해원판굿 '태사른땅 신나라 만나락 하옵소서' 제주 해변공연장
- 4월 18일-24일 강요배 역사 그림전 '동백꽃 지다.' 서울 학교재

대략 23개의 행사가 제주-서울-일본을 이으면서 행해졌고, 거의 4월 한달 동안은 4·3 행사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해원곳에는 유족들 외에 '공식적'이라는 의미가 주는 힘을 활용해 참여한 지방권력단체를 비롯해 사회단체, 종교, 시민운동단체 등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상징기호들이 전통적인 해원곳과 얽히게 되었고, 곳관은 전통적인 상징기호와 현대의 상징기호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란 문제를 비롯해 의례와 공연의 기호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것은 흡사 4·3이 공식화 된 이상 앞으로 의례들은 어떻게 정립되어가야 할 것인가란 문제를 던져주는 것과 일맥상통했다. 더욱이 각기 다른 상징기호들을 갖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의 혼합은 첫 공식 나들이를 한 해원곳으로 하여금 인간존엄이라는 추상적 합의점에 머물도록 한 채 구체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사실의 치유방법은 상실하고 있었다. 그것은 의례의 연대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었으며, 해원의 문제도 속시원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0주년 기념 4·3도민해원상생곳의 한계를 짚어보고 공식화 되어가고 있는 4·3의례가 의례와 공연사이에서 사회의례로서 나갈 방향을 개론적 수준에서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사회변동의 상징기호로써의 의례

의례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시각 중 하나는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하는 요소로써 의례를 설명하는 것이다-durkheim, E., ozouf, M 등-⁴⁾ 이 연대의 문제는 저항을 기념하는 의례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데, 저항기념의례에 대한 고전이론은 오주프(Ozouf)가 프랑스 대혁명을 분석하면서 거슬러 올라간 뒤르켐(Durkheim)까지 이른다.⁵⁾ 글루크만(Gluckman)은 '반란의례'라는 개념을 사용해 아래로부터의 의례 역시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가정 하에서 사회적 갈등에 의해 야기된 긴장과 개인적 감정의 확산을 정리하려는 안전장치(safety-valve)로 파악한다.⁶⁾

4) Durkheim, E.,(1992) 및 Ozouf, M(1988)을 참조할 것.

5) Ozuf, M(1988) 및 김종엽(1999)을 참조할 것.

6) Gluckman, Max(1962)을 참조할 것.

오주프의 프랑스 대혁명 연구는 혁명이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인간의 창조-교육의 장-라는 점에서 의례의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 기념의례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혁명적 축제의 해석사에서 소수파였던 미셀러와 뒤르겐의 노선에 서서 혁명적 축제를 느슨하지만 통일성 있는 문화적 기획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장기적인 문화변동과의 연관 속에서 분석하고자 했다(김종엽 1998). 오주프와 더불어 린헌트(Hunt) 또한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맨스]에서 대혁명의 그림을 프로이드(Freud)의 웨디푸스컴플렉스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의례는 사회계약에 따른 필수불가결의 기호로써 설명하여 사회구성원들간의 연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의 국왕살해사건을 분석하면서 주기적인 우울한 감정과 합리화의 교체과정이 기념의례를 통하여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지의 모습들을 그려냈다.⁷⁾ 폰겔더른(Von Geldern)은 러시아 혁명 직후에 축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한 연구에서 대중이 보여준 축제와 연행 그리고 그것들이 혁명에 대한 기억과 경험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⁸⁾

위 이론들은 사회변동의 과정 속에서 저항을 기념하는 의례들에서 연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상징인류학자 빅터터너가 이야기 한 것처럼 이 연대의 문제는 구체적 상황으로 들어가 얼마나 사회적 유대 및 연대 관계를 정비해줄 수 있는가에 맞닥뜨린다. 터너는 그것을 두고 사회극이 행해지는 동안 한 집단의 정서적 분위기의 흐름을 통해 공적인 위반(breach)이 슬그머니 위기(crisis)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그 위기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사회극에 종교제도가 제공하는 제의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파괴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비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습을 위한 제의적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숨겨진 원인에 대한 예언, 방언 등의 치

7) Hunt, L(1992) 및 Freud, S.(저)/이기우(역)(1996)을 참조할 것.

8) Von Geldern, J.,(1993)참조할 것.

료제의가 가미된다.⁹⁾ 이런 사회적 갈등의 숨겨진 원인에 대한 상황을 좀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분석한 인류학자 로살도(Rosaldo)는 일롱고트인의 머리사냥(head hunting)을 두고서 감정의 문화적인 힘(cultural gorge of emotions)이란 언어로서 그것은 어떤 추상화된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징의 친밀한 관계가 영원히 파괴되어버렸다는 데서 경험하게 되는 느낌을 연행에 옮기고 있음을 제시한다.¹⁰⁾

이상의 이론들은 필자의 이론적 배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사회변동의 과정 속에서 공식화된 4·3의례가 앞으로 어떤 문화적 기획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설 것이며, 의례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인 연대의 문제를 어떻게 통일성 있는 상징적 기호들로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능케 한다. 말하자면 의례에 축제적 성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물음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80년 후반이 되어서야 저항기념의례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정근식은 도시민 정체성과 상징도구를 중심으로 축제의 기능을, 또한 관주도의 축제가 아닌 밑으로의 축제로서 광주의 5월제를 분석하면서 축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엮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5·18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축제로서 또한 민주주의를 시대에 따라 어떻게 재기억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¹¹⁾ 김종엽은 뒤르캥의 현대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오주프와 린헌트의 프랑스 대혁명과 그 기념제를 분석하면서 장기적인 사회변동의 안목에서 저항기호의 상징으로서 축제가 산출해내는 연대와 교육, 심리적 기제까지 밝혀보려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¹²⁾ 류정아는 프로방스 지방의 좌익 공화주의자들의 축제인 마드렌느 축제를 분석하면서 이 축제가 주민정체성과의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있다.¹³⁾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저항

9) 빅터터너(저)/이기우·김익두(편)(1996)을 참조할 것.

10) Rosaldo, Renato(1989)을 참조할 것.

11) 정근식(1996; 1999)을 참조할 것.

12) 김종엽(1996; 1998; 1999)을 참조할 것.

13) 류정아(1998)를 참조할 것.

념의례들의 연구실적은 많지 않다.¹⁴⁾ 그 와중에도 문무병은 제주지역의 곳을 통해 저항기념 의례의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의 곳에 대한 정의는 상실해 가는 자연과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등 생존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현실의 모순을 부정해 나감으로서 민중의 염원을 해결하는 '싸움곳'이란 언어로 표현한다.¹⁵⁾ 그러나 이것은 곳이 가지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연대와 해원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필자가 위의 학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본 연구가 4·3기념 축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각이 이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50주년 기념 4·3도민해원상생곳이 무엇을 생산해냈어야 하는가 혹은 앞으로 무엇을 사회변동의 상징기호로 생산해 내야 하는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Ⅲ. 의례와 공연사이

1. 4·3도민해원상생곳에 대한 개론

'한 심방이 있었다. 모친이 심방이었던 그는 심방이 되기 전 운전수 조수로 일하다 열일곱살에 4·3을 맞는다. 와중에 서북청년단의 운전수가 된 그는 중산간 마을 초도화 작전으로 불타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신칼과 산판을 안고 나오다 총 맞고 절명한 어머니의 주검을 뒤늦게 거둔다. 오랜 무(巫)병을 앓고는 어머니의 무덤에서 신칼과 산판을 파내고 그 원혼을 달래는 귀양풀이곳을 벌이며 4·3원혼곳을 한다.

심방은 신경치료로도 낫지 않는다고 고 2남학생을 위한 곳을 해주다가 4·3원귀가 씌워진 것임을 알고 조부가 서청출신이었다는 것도 밝혀낸다. 큰 원혼곳을 치르고 40년만에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심방

14) 이와 더불어 김종덕, 박해준, 윤선자 등이 지역사의 재해석과 축제, 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15) 문무병(1989)을 참조할 것.

은 말한다. “4·3의 녀들은 억울한 죽음이기에 결코 우리 곁을 떠날 수 없다. 억울한 죽음이기에 결코 눈감을 수 없어 허공 중에 살아 있는 것이다. 한날, 한시에 죽은 원혼을 진혼하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아니 온 섬 백성이 한 자손 되어 한날 한시에 합동으로 공개적으로 큰 굿을 벌여야 옳다.”(중략)’ 16)

50주년 기념 4·3도민해원상생굿은 그렇게 이뤄졌다.¹⁷⁾

대참사에서 죽은 원혼들의 진혼되지 않은 죽음은 산 자들에게 달라붙어 부정적인 죽음에 대한 저항을 일으켜왔다. 그래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몫이 되어왔으며,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죽은 자의 넋을 위해 끊임없이 해원굿을 치러와야 했다. 산 사람의 병은 역사적 상처를 치료함으로써 치유되는 것이었다.¹⁸⁾ 그러므로 병굿-혹은 해원굿이라고 부르기도 함-은 면밀히 치러지며, 외부인을 꺼려했다(문무병 1989). 해원굿이 진행되는 동안 심방은 신의 노염움을 풀기 위해 단골의 연유를 잘 닦아 신에게 아뢰고 신의 의사를 알아내어 단골들에게 신의 분부를 잘 사퇴어야 했다. 그래서 해원굿은 풀이(사설)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산 자의 생존의 문제와 관계했기 때문이다.

조상의 부정적인 죽음을 상생시키지 않고서 살아남은 자와 후손들의 삶은 이 사회에서 편안히 영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4·3으로 죽은 자에 대한 해원굿은 신성화의 의례이다.¹⁹⁾ 부정적 죽음에

16) 제민일보 98년 4월 3일자 사설

17) 4·3 50주년 기념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주최로 98년 4월1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한라체육관에서 도민해원 상생굿판이 열렸다. 제주칠머리당 굿 보존회와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 굿 기능보유자 김윤수씨가 수심방이 되어 치러진 해원상생굿은 열림굿-시왕맞이-살림굿-질치기-살림굿-질치기-만판-하나되는 마당 순으로 열렸다.

18) 김성례(1989) 참조할 것.

19) 뒤르켐은 사회를 탈신성화와 재신성화의 이중적 울동구조로 보았다. 그의 신성은 권위로 이해되어지며 권위는 신성을 지닌다. 이 점에서 4·3의례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권위를 복원하려는 신성화 의례인 것이다. 복원된 권위는 이전의 권위일수도

대한 것을 상생하고 신성을 부여함으로써 살아남은 자들의 죄의식과 부정적 죽음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씻고 이 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재신성화 과정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해원 굿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심방의 빙의나 사설을 통해 죽은 자의 영상과 구체적으로 접하게 된다. 그때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의식과 죽은 조상을 잃은 후 겪었던 지독한 가난과 고생을 대화하면서 북받치는 설움에 눈물을 흘린다. 자신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굿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보통 전통 해원굿은 초감제,²⁰⁾ 질치기, 도진 등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초감제 중 연유 닦음에 이르러서 누가 어떤 사연으로 굿을 하게 됨을 심방의 입을 통해 물어대면 유족들의 감정은 극한 방향을 향하며 빙의에 이른 환자나 심방을 대하게 되면 최고조에 이른다. 그리고 신의 힘을 빌어 부정적 죽음에 대한 상생과 질치기를 통해 해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유족들은 과거의 우울한 감정을 상생하고 자기 신성화를 꾀하게 된다.

있으며 변화된 권위의 형태일 수도 있다. 이것은 뒤르캬의 언어를 빌리자면 신성관념의 변동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20) 전통 무속굿은 시왕맛이를 하는 초감제와 신들이 오고가는 길을 닦는 의식으로서 여기서 원통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여 저승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길을 치워 닦는 제차인 질치기와 굿당에 모셨던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제차인 도진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초감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베포도업침: 천지개벽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 별들의 발생, 국토의 형성 등 지리, 역사의 내력을 노래한다.
- ② 날과 국 섬기: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해 올리는 대목이다.
- ③ 연유닦음: 누가 어떤 사연으로 굿을 하여 신들을 청하게 됨을 올리는 대목, 심방이 그 사연을 눈물로써 노래해 가노라면 그 유족들도 덩달아 눈물을 터뜨린다.
- ④ 군문 열림: 신궁의 문을 열리는 대목, 신들이 하강하려면 신궁의 문을 열어야 하므로 심방은 문을 여는 사설을 하고 격렬한 춤으로서 그 문이 열림을 표현한다.
- ⑤ 산 받아 분부 사림: 심방은 신칼과 산판으로 문이 잘 열리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본주에게 전한다. 점을 치는 것을 산받음 이라 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을 분부사림 이라 한다. 이때 심방은 눈물로써 영혼의 뜻을 본주에게 전하는데 이 대목을 영개울림이라 한다.

그 점에서 50주년 기념 4·3도민해원상생굿은 사회의 자기 신성화의 의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도민해원상생굿판은 이전의 4·3굿판과 명백히 달랐다. 그것은 처음으로 공식화된 의례로 개인의 해원굿을 전체 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치러진 대규모의 굿이었다. 따라서 좀더 조직적이었으며, 상징기호의 명백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졌으며 사용되는 상징기호와 문장들이 달라졌다. 한 조상의 한 자손이었던 가족단위의 굿판이 전체의 마당으로 나오면서 참여자들의 범위가 달라졌으며, 개별 유족은 공적인 단위로 변형되었다. 상징물에 있어서도 주된 본 굿의 모형은 전통 해원굿모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민중문화패에 의해 열린 열림굿과 살림굿의 등장은 굿판에서의 상징물들이 종교적 영향 하에서 명백히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굿판의 배치를 <그림1>과 같이 살펴보면 그것은 더욱더 명백히 드러난다. 한라체육관 한 쪽에 제단을 만들고 그 아래로 열림굿 및 살림굿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음으로 유족들의 자리, 그 뒤로는 관람객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체육관 밖으로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일일 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
- ⑥ 새드림: 신들의 내려오는 길에 모든 부정하고 사악한 것들을 쫓아내어 깨끗이 하는 대목, 이때 심방은 본주를 제사상 앞에 앉혀놓고 "천왕새 드리져 지왕새 드리져..." 하는 노래를 부르며 본주에게 붙어있는 부정한 것들을 신칼로 치우는 춤을 춘다.
 - ⑦ 오리정 신청개: 신들을 청해 드리는 대목, 심방은 쌀을 뿌리면서 모든 신들을 차례차례 청해드리는데 본향당신이나 들어올 차례가 되면 심방은 왼쪽 팔에 폴짝거리를 매고 격렬한 춤을 추며 모셔 드린다.
 - ⑧ 나까시리 놀림: 청한 신들을 즐겁게 놀리는 제차, 큰 시루떡을 공중에 던졌다 잡았다 하며 춤을 추는데 이는 시왕과 영혼은 물론 모든 잠신들에게도 대접하는 제차이다. 이때 큰 시루떡을 나까시리라고 하고, 시루떡을 놀리며 춤추는 것을 나까시리 놀림이라 한다.

제주도 굿의 구조적 원형 부분에 대한 것은 현용준, 진성기, 이수자 등의 논문 등을 참조할 것.

〈그림1〉 배치도

배치도만을 보더라도 도민해원국은 의례와 공연의 혼합형을 도모하고 있었다. 따라서 4·3원혼들의 해원상생이라기보다는 인간존엄성이란 공통분모를 향해 점점 추상화되어 가는 축제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4·3도민해원상생국은 죽은 자(원혼)의 해원을 넘어서 산 자의 넋들임까지 예상한 포괄적인 사회의 해원상생 과정을 그리고자 했던 의례였다. 사회의 재신성화 과정을 보여주는 의례였던 것이다. 그러면 왜 사회는 4·3도민해원상생국을 통해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포함한 신성화의 의례를 도모하려 했는가? 그것은 사회변동에 따른 상징구조의 변화를 신성화의 의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서 대중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3도민해원상생국은 정권교체가 가져다준 변화된 사회의 분위기를 읽게 하는 장치였다. 그것은 민주화 사회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97년의 정권교체는 지난 사회의 모순 및 부정성과 결별한 민주화 사회의 시작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지난 사회의 부정적 죽음을 씻는 4·3도민 해원상생국 만큼 상징적 의례로서 창출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의례는 없었다. 따라서 지방의 공적 권력은 이 4·3도민해원상생국의 공적 진입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²¹⁾

21) 97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4·3국이 공개적으로 열리기란 쉽지 않았다. 5공 시절까지 정치권력은 경신연합이라는 무속인 협회를 만들어 4·3국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제 4·3도민해원상생굿판은 새로운 사회의 상징기호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대의 장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4·3도민해원굿의 구성은 전통과 현대의 특성을 하나하나 조합한 열림굿(공연)-시왕맞이-살림굿(공연)-질치기-살림굿(공연)-질치기-만판-하나되는 마당 순으로 열렸다. 열림굿은 풍물열림굿→어린이민요단 소리나라 공연→정태춘·박은옥 공연→문무병의 서시 낭독→풍물굿패 신나락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살림굿은 가수 장사익의 공연→안혜경의 공연→김명곤의 소리공연→제주민예총 음악위원회의 음악공연→유족증언→김희숙 춤공연→민요패 소리왓의 공연→정승천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차되는 방식의 절차와 내용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기 위한 주최측의 기획의도였지만, 이와는 달리 이러한 절차와 구성방식이 의례의 종교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의례의 분절적 성격을 유발했고, 전통적인 해원굿과 현대의 축제적 공연 사이의 적절한 조합의 경계는 어디나란 문제를 산출해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크게 전통적인 해원굿을 위해 참석한 유족들과 그 외의 사람들-특히 4·3을 접하지 못했던 세대들이나 사람들-을 어떻게 연대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기도 했다. IV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4·3도민해원굿은 50년 동안 숨겨 두었던 4·3원혼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낸다는 데 기획의 비중이 있었으나, 굿판을 둘러싼 사람들로 인해 종교적 의례로서의 굿과 연회적 특성으로서의 공연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구체적인 갈등의 모습은 다음부터 전개된다.

2. 새로운 연대와 인간존엄의 문제

4·3도민해원상생굿에서 기획된 연대는 의무의 담론이었다. 4·3에서 살아남은 자와 후손들의 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자와 후손들은 죽은 자에 대해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그 빚이란 죽은 자의 부정적

유족들은 비밀리에 이 굿을 치러왔기 때문에 50주년 기념 4·3도민해원상생굿이 공개적으로 열리던 98년도라고 하더라도 모든 유족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죽음을 해원하는 일. 그리고 그 해원은 해원상생굿이란 상징적 도구를 통해 상생되며, 4·3으로 얼룩졌던 사회는 4·3도민해원상생굿을 통해 부정적인 공간에서 긍정적인 공간으로 상생되며, 재신성화 된다. 이 굿판을 통해 유족 개인은 자신의 조상이 폭도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도덕적 자책이 아니라 체체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지며, 굿판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복원하게 된다. 이것이 기획된 연대이다. 따라서 이 굿판을 통해 신성화된 사회는 다시 산 자와 죽은 자 전체에 대한 규범으로서 자리하게 되고 그것의 신성화를 위해 굿판의 참여자들은 연대하며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집합의식이다.²²⁾

그러나 4·3굿판에서 연대를 규정하는 집합의식은 그것의 형식과 내용에서 변동을 겪어야만 했다.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통적인 4·3굿은 구체적인 대상과 관계했다. 개별 유족들은 굿판에서 죽은 조상의 원혼이 씌인 사물, 망자에 대해 두려움이란 공동의식을 가졌으며, 4·3을 기억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질병과 불행, 그리고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위협스럽고, 또 그 자체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김성례 1989: 73). 그것은 한 집안 유족들의 의식에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강한 규정력과 근접성을 비롯해 구체적 대상과 관계에서 한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굿판이 집 담장 밖으로 나와 넓은 공간을 지배하면서 개별 유족들의 구체적 대상은 4·3도민해원상생굿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의식들을 규정할 수 없기에 공통의식 자체도 지역적 다양성 위로 부상하여 추상화·일반화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굿판은 의례로서의 굿에서 열림굿, 살림굿 등 축제로서의 공연까지 아우르며 확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연담당, 준비담당, 홍보담당, 관람객 등의 역할 분화가 일어났다. 이전의 담장 안 굿이 준비에서 마무리, 심지어 구경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 내에서 이뤄지던 모든 역할들이 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역할분화는 참여자 들간

22) 뒤르켐은 집합의식을 사회성원들이 공유하는 의식상태로 지칭했다. 그것은 사회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의미자원을 뜻한다.

에 굿판에 대한 집합적 인상을 달리하도록 했으며 이를 극복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좀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단계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인간존엄'이었으며 집합의식의 내용 변동이었다.

이제 개인들은 하나의 사상 아래 결합되고 인간존엄성에 대한 숭배는 이들이 집합의식으로 습득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굿의 대상이 '구체적 조상의 해원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이념으로 추상화 및 광범위화 되어가는 것이었다.

심방의 죽은 자의 고통에 대한 연유풀이나 산 받아 분부 사립조차 담장 안보다 덜 구체적이며, 일반적이 되어갔다. 심방은 개개 원혼들의 사설을 모두 읊지 않았다. 지역을 몽둥그려서 '어느 지역, 몇 월 몇 일 죽은 원호들~풀어줍써'라고만 한다.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떤 도구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 왜 산 자를 괴롭히는지 그 구체적 사실들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많은 유족들의 연유와 산을 일일이 다 읊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도민해원굿의 절차상도 불가했다. 의례와 공연의 교차적인 절차와 시간의 공평한 안배를 위해 굿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1백 여개의 인정이 걸렸지만,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 또한 모두 4·3피해 지명만을 표시하고 있어 조상의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을 해원하고 싶어하는 유족들의 바람은 축제로서의 굿을 위해 고사해야만 했다. 굿판은 이제 과거 4·3의 기억만을 되살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의 본성에 근거하게 된 것이다. 결국 확장되고 분화된 굿판은 과거 4·3에 대한 기억과 현재 사회본성 사이의 간극을 만들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집합의식은 모든 성원이 충분히 유사해질 수 있는 인간존엄의 개념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열림굿과 살림굿이란 공연 또한 인간존엄과 민주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된 '굿'이었다.²³⁾ 민중가수, 민중시인, 민중놀이패 등이 이 굿을 장식하며 전체 굿판은 해원에서 인간존엄까지

23) 이것이 '굿'이란 이름을 달게 된 데에는 주최측이 굿이 갖는 '연행'의 의미를 차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달음친다.

모인 개인들은 마치 충동에 이끌린 듯이 그들의 유사성의 흐름에 의해 모이며 서로를 찾고, 서로 관계에 들어가고 맹약을 맺으며 그렇게 해서 점차 일반 사회 안으로 식별 가능한 영상을 가진 한정적 집단이 되어갔다. 그리고 이 한정적 집단의 지속성을 위해서 인간존엄성이란 승배에서 발산되는 위계적 신성 아래 연대의 정신을 강구하고, 합의를 도출해내야 했다. 그것은 정권교체가 가져다 준 공개 굿판에서 지난 사회에 대한 독재와 부정을 단죄하고 새로운 사회의 도덕적 규약을 만들어 가는 인간존엄성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란 역할배분이 이뤄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 상징공간의 문제

1998년 4월 2일 18시 저녁부터 언론사들이 초점을 맞춘 곳은 한라체육관이었다. 그곳에서 실로 4·3사건이 일어나고 50년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4·3해원굿판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한라체육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4·3도민해원굿판을 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4·3은 폭넓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 사건이었으며 4·3도민해원상생굿은 여태껏 픽박을 담보로 비밀리에 치러져 왔기에 참여자들은 그들이 모두 공통으로 찬성할 수 있는 공간,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으며, 50주년 행사의 상징이 스며들기를 원하는 그런 장소에서 열리길 바랐다. 신성한 공간으로 규정된 곳은 개인들을 통합시키며 그들의 믿음을 증폭시키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라체육관은 굿판을 일부 참여자들에게는 공연으로 연상시켰으며, 때문에 그 즈음 4·3 50주년을 기념해 쌓고 있었던 해원상생탑을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사람들은 상징공간을 통해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그 상징공간 안에서 연대한다. 사람들은 막힌 공간에서 뻗어 갈 수 있는 공간, 원혼이 깃들여 있어서 해원을 할 수 있는 공간-예를 들면 4·3집단 학살터 등-을 열망했으며, 이런 공간의 부조화는 배제되

어야 한다고 여겼다. 바뀐 굿판은 새로운 연대를 위해 새로운 상징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오로지 기억될 만한 것은 체육관 내의 5평 남짓의 제단이었으며 그 제단만이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한라체육관은 공적으로 모인다는 의미 외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질 수가 없었다.

장소의 이행은 공간과 금기의 지난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성스러운 사물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금기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로지 이전 금기들은 개인들의 내면 속에서만 자리하게 되었다. 금지된 장소도, 금지된 언어도, 금지된 사물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담장 밖 나들이를 처음 나온 굿판의 어설피품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성스러운 존재들이 속된 것들과 확연히 분리되는 대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속된 생활과 관련된 것은 종교적인 생활과 섞여서는 안된다는 그 어떤 규정도 없었다. 이것은 신성개념이 이동중이거나 탈신성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굿판에 참여하기 위해 3일 정성을 한다는 것은 유족 외의 참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유족 내에서도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굿을 하는 동안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제한했던 것도 무용지물이 되었다. 굿판 내에서 금지구역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또한 굿판참여자들의 이전 역할 수행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았다. 장소의 이행은 분명 기존 역할 수행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었다. 그것은 금기로 인해 마련되었던 전통 질서의 파괴를 의미했으며 질서 재편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해원방사탑은 원혼들의 죽지 않는 영원한 부분이 지상에 계속 남아 산 자와 후손들의 권위에 신성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호로써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한라체육관은 4·3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4·3해원상생굿이 공개적인 장소로 나왔는데 의미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었다.

IV. 𡇗판을 둘러싼 사람들

-부정적 연대의 개념을 빌어²⁴⁾-

4·3도민해원상생𡇗판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주최자와 유족들을 제외한 참여자들과 정치인들의 우연성을 제거하고 상호작용을 규율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지방 선거와 𡇗판 자체일 것이다. 위계적인 권력배분에서 탈인격화된 물권이 대인적 행사만을 근거로 해서 부정적인 연대를 규정한다면, 4·3𡇗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매개는 여러 가지였지만 이 중 𡇗판을 제외하고 절대 우위를 차지한 것은 그 즈음 있었던 지방선거였다. 사실 이런 부정적 연대개념의 파악 없이는 4·3𡇗판의 크기를 쟀수는 없다. 단지 4·3유족들의 𡇗판에 대한 집중만으로 𡇗판의 크기의 규모를 판단한다면 그건 오류다. 지방선거로 인해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수립된 인격적 상호작용은 그곳에 참여한 개인들이 정치인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같은 것이었다. 정치후보자들은 4·3𡇗판이 '표발-투표권을 가진 다수가 모인 자리-'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표'를 주면 불분명한 4·3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일종의 거래를 제시하고 있었다. 𡇗판이 현재 사회의 본성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것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사회통합 기제로 작용했다. 이 점에서 4·3𡇗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유족, 공연자들, 주최인들을 벗어나고라도 4·3𡇗판 밖에 있는 이러한 부정적 연대가 오히려 4·3𡇗판의 크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𡇗판을 주최한 학술·문화사업

24) 특별히 뒤르켐의 부정적 연대의 개념을 빌려 사용하는 것은 이 논의를 위해 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는 물권과 물권의 대인적 행사를 근거로 해서 부정적 연대를 설명한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결속없이 일어나는 어떤 사회관계를 지칭하며 물권 개념 이상의 영역을 지칭한다. 그것은 그가 관료제나 법적 형식을 요구하는 시장을 두고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부정적 연대의 정확한 활용이 이뤄진다면 하나의 사회적 관계의 규모는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추진위원회, 칠머리당굿보존회를 비롯한 공연자들, 유족회 등 직접적인 3자의 관계 외에 정치후보자들, 학생을 비롯한 도민과 언론 및 굿판 관련 전공자들이 나이테처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후자의 사람들이 연대를 위한 참여자들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관계를 엮은 지방선거는 4·3굿판의 규모를 확대시킨 명백한 요인이었으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권교체가 가져다준 선물이었다. 이전 같으면 참가하지도 않고 부정적 인식으로 바라보았을 4·3굿판은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공적 권력에 의해 그 부정성이 묵인되면서 정치후보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밭이 되었으며, 이 모든 확대된 참여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굿판의 상징기호는 더욱더 추상화, 일반화, 합리화 될 수밖에 없었다.²⁵⁾ 따라서 의례로서의 굿과 축제로서의 공연사이의 간극은 이들로 인해 더욱 벌어졌으며 의례의 보편적 성격인 연대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었다. 굿판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지방선거란 변수는 4·3굿판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수많은 집단들과 지위 및 역할들로 구성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들을 뛰어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결국 지방선거란 변수는 4·3도민해원상생굿판의 규모와 연대의 범위를 확대시킨 중요 요소가 되었으나 연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 4·3의례는 점점 이 부정적 연대가 확대될 것이며 그것을 고려한 의례의 모형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림 2〉 부정적 연대의 밑그림²⁶⁾

25) 이것이 사회통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차후의 과제이다.

26) B부분의 참여자들은 부정적 연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V. 굿판에 드러난 상징기호

50주년기념 4·3도민해원상생굿판은 자신의 조상신을 매우 공적인 신으로 창조해 낸 명백한 과정이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인간존엄성은 신성한 것들로 변형되었다. 그 자체는 교리가 되었으며 굿판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4·3도민해원상생굿판은 하나의 새로운 상징적 의상, 기호, 문장을 생성해냈다. 명전과 열림굿, 살림굿의 등장은 그 중의 하나이다. 공개적 굿판에서 산출되는 상징적 기호들은 이전의 개인 굿판과 달라졌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상징적 기호들은 신성의 대상이 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굿판 안에서 공동체는 기원의 만장일치에 도달하고 더불어 집합체의 생기를 회복한다. 설령 그것이 슬픔의 향연이라고 해도 그렇다. 슬픔 속에서의 소통도 소통이며 그 모든 소통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사회적 생명력을 높인다.²⁷⁾

4·3도민해원상생굿판은 한 장소에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큰 흥분제로 작용했다. 한 유족의 눈물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해 자신의 감정이 고무되었다. 이런 집합적 감정은 새로운 숭고한 관념의 출처가 되었으며, 그것에는 상징을 창조하는 힘이 내장되었다. 본질적인 것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며, 감정이 공동으로 체험되고 공동의 행동 속에서 표현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감정과 행동의 특수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이며 우연적인 것이었다. 필수적인 것은 집단이 동일한 사고와 행동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을 지배하고 고양하며, 개인으로 있을 때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특유한 삶을 제공하는 예외적으로 강한 힘이 거기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집합적 감정의 영향 아래서 그들은 때로 긍정적인 착란에 사로잡힌다. 이 착란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행동까지도 하게 된다.²⁸⁾

27) 김종엽(1998: 297) 참조할 것.

28) 굿이 열리는 동안 자신을 확대하는 행위를 하는 유족들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을

굿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들 각각의 느낌을 표현해주는 동일한 기호에 의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만장일치로 이 사건을 지각한다. 참여자들은 덜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연유 닳음과 산받아사뭇을 알리는 본 굿에서 자신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상상한다. 참여자들의 모든 부부으로부터 다양한 색조로 뿜어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형성된다. 자신의 의식 안에서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러한 다양한 표상들은 서로 결합하고 자신의 감정과 결합한다. 따라서 그 이전의 것 보다 덜 내 자신의 것인 개인성의 색조가 더 적은 그리고 자유로워진 새로운 상태가 형성되는 것이다.²⁹⁾

유족들은 심방의 카리스마를 생성시킨다. 심방이 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굿판의 질서는 없다. 그래서 유족들은 심방의 카리스마를 생성해 내 그들 스스로의 질서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4·3도민해원상생굿판의 심방은 질서를 위한 필요 이상의 카리스마를 발산하지 않았다는 점³⁰⁾에서 담장 안의 굿판보다 심방의 권위가 우세한 것은 아니었다.

심방의 입을 통해 공동의 조상이 된 4·3원혼들의 억울함이 굿판이라는 상징공간을 통해 울려 퍼지게 되면 모든 유족들과 참여자들은 인간존엄이라는 사실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때 참여자들은 동일한 슬픔을 느끼며, 서로 연대한다. 하지만 4·3이 진상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불투명성과 다수를 몽뚱그려 해원한다는 사실 때문에 유족 외의 참여자들의 개인적 표상을 마음의 결사인 집단적 표상으로 이끌기까지는 시간을 요구했다. 그것은 새로운 집합의식의 전체 상징적 기호로 드러난 굿이 4·3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넘어 인간존엄성이라는 주제를 등에 업은 민

학대해야 유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강해 보이는 것처럼...

29) 김종엽(1998: 310) 참조할 것.

30) 심방의 연행은 제주지역의 굿인 경우 빙의 및 사설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높낮이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4·3도민해원상생굿이 진행되는 동안 심방의 사설은 일반적이었으며, 보편적이었다.

주화 사회의 도래까지 보여주어야 했던 무게의 하중이기도 했다.³¹⁾

VI. 나오며

50주년 기념 제주 4·3도민해원상생국은 이후 4·3기념 위령제에서 행해지는 모든 굿판의 모태가 되어왔다. 이것은 마치 4·3을 기념한다기 보다 50주년을 기념하는 또 다른 기념행사처럼 보여지기까지 한다. 50주년이 가져다 준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벌어진 많은 행사들이 이후 4·3 기념의례의 공식적인 뿌리가 되고 있다. 사실 대항적 담론으로서 국가폭력의 지배적 담론을 뒤엎던 4·3의례들은 정권이 교체된 후 매우 큰 상징적 의미와 역할수행의 과제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로 골방 속에 박혀진 4·3해원굿과 제의례를 공개석상으로 이끌어내는 임무가 사회운동단체들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은 민주화된 사회의 도래를 암시하는 의례로서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4·3굿판이 공개석상에 얼굴을 내밀던 날 굿판은 이질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와 공통 의식을 결집시키기 위해 '인간존엄'을 상징적 기호로 선택했고 그것을 보좌하기 위한 열림굿, 살림굿, 등 새로운 상징기호와 문장들을 생산해 내, 과거와 현재와의 간극을 매우려했다. 그리고 확대·분화된 굿판은 새로운 역할 수행의 변화와 신성관념의 변동을 예고했다. 50주년 기념 4·3굿판은 이전의 굿판과 명백히 달라졌다. 그것은 새로운 연대를 원했으며, 정권교체에 따른 이전 사회의 부정성을 씻고 재신성화 하려는 사회변동의 상징기호로서 작용했다. 그 덕분에 4·3도민해원국은 뜻하지 않게 그 규모가 확대(부정적 연대) 되었으며, 의례와 공연사이에서 잠시 연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흔적을 남긴 채, 이제는 과거와 현대의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조합하여 해석하며, 의례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인 연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과

31) 상징적 기호인 민주화 사회 아래로 그것을 돕는 열림굿, 살림굿 등의 상징적 기호 및 문장체계들이 서 있는 것이다.

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특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영상과 떨어져 사회의례의 성격을 추상화해버린다면 먼 여행 후 돌아오기 힘든 후회가 서릴 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난 4월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4월제의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례, 1989. “원혼의 통곡: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제주무속”, 『제주도 연구』제6집, 제주학회
- 김종덕, 1999. “지역사의 재해석과 축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 김중엽, 1996. 『에밀 뒤르껭의 현대성 비판에 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 1998. 『연대와 열광-에밀 뒤르껭의 현대성 비판 연구』 창작과 비평.
- , 1999. “프랑스 대혁명과 혁명적 축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 류정아, 1998. 『전통성의 현대적 발견: 남프랑스 마을의 축제문화』 서울대 출판부.
- 문무병, 1989. “굿의 연희적 특성”, 『제주도 연구』제6집, 제주학회.
- 박혜준, 1999. 『문화정책과 전통의 재해석-위도 띠벳놀이를 중심으로』,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 학위논문.
- 빅터터너/이기우·김익두 옮김, 1996.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 윤선자, 1994. 『프랑스 혁명기의 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수자, 1990. “제주도 큰 굿의 구조적 원형 및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 연구』제7집, 제주학회
- 정근식, 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1996년 전기 사회학 대회』.

_____, 1999. "사회운동과 5월의례, 그리고 5월 축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새길.

진성기, 1968. 『남국의 무가』

현용준, 1980.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Durkheim E(저), 노치준, 민혜숙(공역), 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Freud, S.(저)/이윤기(역), 1996. "토템과 타부", 『종교와 기원』, 열린 책들
Gluckman, Max, 1962. Essays on the Ritual of Social Relations,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Hunt, L., 1992. The Family Romance of the French Revolution, Routledge & Kegan Paul.

Ozouf, M., 1988. Festivals and the French Revolution, Harvard Univ. Press.

Rosaldo, Renato, 1989. Culture and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ston: Beacon Press.

Von Geldern, J., 1993. Bolshevik Festivals, 1917~1920, Univ. California Press.

4·3 50주년 기념 해원방사탑 쌓기 팸플릿 등 그 외 4·3자료.

4·3 50주년 도민해원상생굿 팸플릿 및 사진 및 영상 자료

4·3 기념제 관련 신문자료.

제50주년 제주 4·3학술 문화사업 추진위원회 사업계획서

Rite, performance, and solidarity's problem

-The 50th anniversary memorial 4·3 rite of Cheju island-

Hyun, Hye-kyung

Cheju national university

summary

After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in 1997, there was higher atmosphere to examine into the truth about 4·3 in Cheju island. In April in 1998, there were many ceremonies in Cheju area. It also happened from Seoul to Tokyo and Osaca. That was a result of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in 1997.

Specially, there were some kinds of ceremonies about Hae-won. Hae-won means that descendants should help a enmity of ancestor to have died. Hae-won sangsaeng gud was the most important ceremony of among them.

It was a rite that descendants has recovered his or her own identity and cultural background to help a enmity of his ancestor. So it was very important ceremony in cheju island. But there were some problems after the first formal rite, which were gaps from rite to performance.

And then, the aims of this paper is deal with it.